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7월 25일
제1862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요한 6,9. 11)



〈빵과 물고기의 기적〉, 최영심 작
애덕의 집 성당, 벽제, 경기도

연중 제17주일 (나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 1 독 서 2열왕 4,42-44

화 답 송 시편 145(144),10-11.15-16.17-18 (©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 서 에페 4,1-6

복음 환호송 루카 7,16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요한 6,1-15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주님의 현존으로 저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제가 외로울 때에도
 주님은 저의 희망이요 믿음이며
 제 젊은 시절부터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성체가 되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족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내리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기쁨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제 삶에서 이미 이룬 꿈과
 앞으로 이루어 나갈 꿈에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어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에도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저의 믿음을 길러 주시고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더 고통받는 이를 끌어안고
 멈추지 않고 꿈을 꾸며
 새로운 세대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복음의 빛이 땅 끝까지 비추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휩쓴 감염병의 폭풍이 가라앉고
 가난한 이들이 위로를 받으며
 온갖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나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 날까지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복음 묵상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음식을 두고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이 실례같지만,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이른바 ‘맛집 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저마다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하여 두 가지 모습의 빵을 떠올려 봅시다. 한 가지는,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저 혼자 숨기고 먹는 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은 아이의 빵입니다.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 빵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초라한 빵이 아무 소용없다는 포기과 절망은, 다만 살기 위해서 먹는 빵일 뿐입니다. 반면에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레 내어놓은 아이의 빵은 작은 봉헌임에도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깃든 빵입니다. 그 빵을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는 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빵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기 위하여 먹는 빵이 아니고, 그것만 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빵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죽기 위해서 먹는 빵입니다. 내어놓고 봉헌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먹는 빵입니다. 그 빵은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선택하게 이끌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성체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먹는 것조차도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자 먹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본당 교리경시대회 출제 문제(1)

천주교 교리문답

본당 교리 경시대회(11월)를 준비하며 이번 주부터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이 조선대목구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에 펴낸 문답식 천주교교리서>을 연재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며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체합하는 은총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1 편 믿을 교리 

1.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답>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므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2. 천주를 알아 공경하므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답> 천주를 알아 공경하므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천주교를 믿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3. 천주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답> 천주교는 천주께서 친히 세우신 참된 종교로서 세계적으로는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4. 가톨릭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며 공변되다”는 뜻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세계 만민이 아무 차별없이 다같이 신봉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5. 가톨릭 교리는 몇 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 가톨릭 교리는 세 편으로 볼 수 있으니, 1)믿을 교리와 2) 지킬 계명과 3) 은총을 얻는 방법입니다.

6. 믿을 교리는 무엇입니까?

<답> 믿을 교리는 대강 사도신경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7. 지킬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지킬 계명은 천주께서 내리신 십계와 가톨릭 교회의 모든 법규입니다.

8.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답> 은총이란 천주께 받는 공으로 받는 사랑으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9. 천주께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답> 천주께서 진리를 계시로써 가르쳐 주셨고, 성경과 성전에 보전하게 하셨습니다.

10. 계시(啓示)는 무엇입니까?

<답> 계시는 천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신령한 기적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하여 주신 진리입니다.

11. 성경(聖經)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직접 성신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천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강생이전에 쓰인 것은 구약이라 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은 신약이라고 합니다.

12. 성전(聖傳)은 무엇입니까?

<답> 성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천주의 말씀으로, 영구히 그르침이

없이 가톨릭 교회안에 전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13. 가톨릭 교리를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가톨릭 교리를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주를 알아 공경하므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가톨릭 교리를 뜻만 배우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중에 중대한 대목은 본문까지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1 장 천주(天主=하느님)

14. 천주께서는 누구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만선만덕을 갖추신 순전한 신(神)이십니다.

15. 천주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답> 천주께서는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내셨습니다.

16. 천주께서는 영원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영원하시어, 시작도 마침도 변함도 없으십니다.

17. 천주께서는 전지(全知)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전지하시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18. 천주께서는 무한(無限)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무한하시어 유한(有限)한 모든 곳에 다 계시고도 무한히 남아 계십니다.

19. 천주께서는 의(義)로우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의로우시어 선(善)을 상주시고, 악(惡)을 벌하십니다.

20. 천주께서는 전능(全能)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전능하시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21. 천주께서는 선(善)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무한히 선하시어,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당신께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2. 천주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천주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23. 천주께서는 전지, 전능, 전선 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죄악과 전쟁과 온갖 병고가 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까?

<답> 천주께서 전지, 전능, 전선하시면서도 현세에 죄악과 전쟁과 병고가 계속되는 것은, 천주께서 지극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자유를 인간들이 남용하기 때문이고, 또 현세의 온갖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죄악을 보속하고 공덕(功德)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1 알링턴 교구 쿠오바디스 성소 캠프



△ 본당 두 신부님과 참가자 유준 미카엘

2021년 교구 성소국 주최 쿠오바디스(Quo Vadis) 성소 캠프가 CYO 학생을 대상으로 7월 11일(일)부터 7월 15일(목)까지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에서 있었다.

코로나19로 교구 내 70개 본당 출신의 고등학생 중 11,12학년을 중심으로 45명만 참여한 올해 캠프에 본당에서는 1명의 학생(유준 미카엘)이 참가하였다. 캠프로 출발하는 날 본당의 두 신부님께서 참가 학생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쿠오바디스 성소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사제, 부제, 신학생, 그리고 수사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 특강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을 같이하며 사제·신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맛보기도 하고 본인의 '성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소국장 신부님과 함께



△ 참가자에게 강복 주시는 이 요한 사도 신부님

1 7월 25일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 교황청은 7월 25일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외된 노인들을 방문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 회장단 노인이파트 방문(애난데일, 버크 아파트)

전대사

- 노인들은 이날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미사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보건 위기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들을 고려해서, 전대사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수여된다.
- 전대사는 이날에 독거노인을 방문하며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도 수여된다.
-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공공당국이 직접 방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곳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한 만남을 통하여 전대사를 받을 수도 있다.

2 K of C 월례회의

- 일시 : 7월 25일(일) 오전 11:30 친교실(B-4)

3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25일(일) 오전 11:30 나눔터

4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 - 6학년
- 신청 : 7월 31일까지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1-0333

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1일(일) 오전 11:30 친교실(B-1,2)

6 유아세례식(8월부터)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 사무실 (703) 968-3010

7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 일시 : 9월 26일(일) 오후 1시, Bristow Manor Golf Club
- 참가비 : 100불(점심 김밥, 저녁 제공)
- 이번 25주년 기념 골프대회 참가 자격은 본당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즐기며 운동하는 이번 골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주차 질서를 지켜 주세요.

- 주차 질서를 지켜주시고 문을 열 때 옆 차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주차장은 본당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9 본당 교리경시대회

- 11월에 본당 교리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교리문제는 “천주교교리문답” 320항 중에서 출제됩니다.인터넷에서 “천주교교리문답”을 검색하시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 안내

- * 9월 19일(일) : 효도 한마당
- * 9월 26일(일) :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Bristow Manor Golf Club)
- *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마이클 버벗지 주교님 미사 집전, 역대신부님 초청)
- * 10월 16일(토) : 장터한마당, 본당 주차장
- *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 * 10월 31일(일) : 야외미사, Bull Run Park
- * 11월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 *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7. 모든 모임은 사도회 담당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2021-22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1. 입학 대상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 12th)
2. 학사 일정 : 2021년 9월 11일 ~ 2022년 5월 21일
매주 토요일 9:30 am ~ 1:00 pm
3. 학비 : *등록비는 환불 안됨
 - 첫째 자녀 \$490 (등록비 \$50 + 학비 \$440)
 - 둘째 자녀 \$450 (등록비 \$50 + 학비 \$400)
 - 셋째 자녀 \$400 (등록비 \$50 + 학비 \$350)
4. 등록안내 :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등록원서 구골품 링크 : <https://bit.ly/3ApwdHz>
 - 등록비 보내실 곳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5. 등록마감 : 8월 15일 (등록비를 보낸 후에 등록 완료됨)
6.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교사, 보조교사, Volunteer를 기다립니다.
 - 교사 지원서 링크 : <https://bit.ly/2Ut7Nw3>
6. 문의 : 교감 김정선 (571)217-8941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7월 18일(연중 제16주일)

주일헌금	\$ 6,157.00
교무금	\$ 9,810.00
교무금(신용카드)	\$ 4,5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710.00
온라인 봉헌	\$ 3,080.00
합계	\$ 24,27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28일(수) 오전 6:15-6:45
7월 3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양심 성찰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29일(목) 오후 5:00-6:00
7월 30일(금) 저녁 8:00-9:00
8월 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CPBC 뉴스
2. 신부님 미사 강론
3.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김대우 모세 신부 - 다섯번째 이야기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때”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 5:00 PM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5:00 PM(English Mass)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